

종합·해설

■ 민주 경선 초반 4곳이 승부 가른다... 대권주자들 판세와 전망

제주, '3강' 모두 1위 자신감
울산, 문재인·김두관 '2파전'
강원·충북, 손학규 우세 점쳐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초반 4개 지역 순회경선의 판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26일 울산, 28일 강원, 30일 충북 순으로 진행되는데 초반 4개 지역의 경선 결과는 전체 경선(13개 지역)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3강(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모두 1위를 자신하고 있다. 제주의 현역 국회의원 3명 가운데 김우남 의원은 손 후보, 김재준 의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고, 강창일 의원은 중립을 선언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특정후보에 쏠려있지 않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선거인단 규모가 3만 6000여명을 넘어섬에 따라 조직표의 영향력이 위축, 무난하게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손 후보와 김 후보는 '문재인 한계론'이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부터 이번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준영 후보는 최소 5%, 많게는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울산은 부산·경남(PK)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이 지역 출신인 문 후보와 김 후보가 강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공업 도시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표심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와 김 후보 측은 제주에 이어 울산까지 1위에 오르면 대세를 형성해 이후 경선전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손 후보 측은 조직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있어 3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은 약세를 인정하면서도 5% 이상은 득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문 후보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강원은 손 후보가 2008년 총선 후 당대표에 물러난 뒤 머문 곳으로 '제2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각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손 후보 측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친노(親盧) 조직도 세다"며 문 후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손 후보 측은 "손 후보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울산 경선에 승리하면 해볼 만한 곳"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손 후보의 강세를 예상했지만 최종원 전 의원 영입 등 조직 보강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충북=4차 경선지인 충북은 강원과 마찬가지로 손 후보의 우위가 예상된다.

손 후보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홍재형 전 국회의장, 오재세의 원 등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손 후보 측은 충북의 승리를 기반으로 중반전을 승리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노영민 의원, 김 후보는 정범구 전 의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조직을 총동원, 손 후보와의 간격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검증'
민주 버든다
당내 TF 가동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민주통합당이 박 후보에 대한 검증 체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미 당 전략본부 산하에 박 후보 검증을 위한 비공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인사는 "얼마 전 실무팀을 꾸려 박 후보의 과거 행적과 발언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준비를 해왔으며, 제보도 모으고 있다"며 "후보 확정에 맞춰 도덕성과 역사관, 정치적 자질, 정책 및 신상 문제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문사건 상조사위를 발족한 데 이어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단'을 구성기로 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철수 입당론
민주당내 부각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대표를 대선 주자로 선출하는 등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원장의 '입당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전제 조건으로 안 원장의 입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 출연 '안 원장이 끝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단독 후보로 나오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안 원장의 입당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당의 존립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가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활동 광주, 역동 전남' 8개 공약 발표

광주 상품거래소 반드시 설치
나주 창조산업 클러스터 육성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활동 광주, 역동 전남'을 위한 8개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호남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께 광주·전남을 방문 중인 문 후보는 이날 강연대 광주시장을 접견하고 "광주·전남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민주 정부의 자부심 그 자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저는 호남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전남을 민주·인권·문화가 살아 숨 쉬고, 산업발전과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미래지향적 삶의 공

간으로 탐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에 상품거래소 설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마무리 및 나주혁신도시 창조산업 클러스터 육성 ▲광주의 자동차

후보는 이날 강연대 광주시장을 접견하고 "광주·전남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민주 정부의 자부심 그 자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저는 호남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융복합형 생명산업을 활용해 전남의 농어업을 친환경 고소득 농생명 산업으로 전환하고 무안공항을 활성화해 여객과 물류 해양, 공중 복합운송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광주시가 추진중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추진과 관련해 "입기 중에 추진하려는 남북경제연합 구상이 가시화되면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U대회에 북한팀 참가나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개·폐막식 예술단 참가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기문 UN사무총장, 강운태 광주시장 등과 협의해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호남 출대론에 대해 문 후보는 "광주·전남민의 참여정부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비추어보면 참여정부가 여러모로 부족했다"며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학규 "남북경제공동체·평화체제 동시 추진"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후보는 20일 남북경제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인구 8000만 명의 '한반도 경제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손학규가 드리는 저녁이 있는 삶', 남북관계 관련 7번째 정책발표회를 열어 남북관계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우선 임기 첫해에 남북

정상 '평화성장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돌고구를 마련하고, 나아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당면과제 해결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평화성장'을 위해 개성공단 등 특구 활성화, 한반도 종단철도(TKR) 완성 및 대륙철도 연결, 농업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전도사'로 불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국내외의 통일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권 후보들 "박근혜 대항마는 나"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2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다른 삶의 이력을 내세우며 저마다 '박근혜 대항마'를 자처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효과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성정치에 실망하는 안 원장 지지층의 기대와 희망을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후보가 당내에는 문재인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손학규 후보 측은 대학시절 조영래

변호사,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서울대 삼총사'로 불리며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빈민운동, 유산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생사를 넘나든 사실을 상기시키며 박근혜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이지만 '박근혜는 안 된다'는 사람들, 박 후보를 찍을지 말지 망설이는 중도층의 표까지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손학규"라며 표의 확장력을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이장을 시작으로 군수·장관·도지사를 두루 거친 후보의 이력을 내세워 "박 후보가 귀족적 이미지라면 김 후보는 뱃속까지 서민인 사람"이라며 "귀족 대 평민", '여

왕 대 서민' 대결구도를 통해 본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장담했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는 정세균 후보 측은 인지도 제고와 관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의 경제가 모두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잘 관리하려면 경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후보 측도 낮은 인지도로 고전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현재 구조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땅에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통성과 호남 기반을 갖춘 박준영만이 정권 교체의 적격자"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研修生募集.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개강일시, 모집기간, 수업기간, 수강료, 수료후 특전, 원서교부 및 접수처.

임대&매매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③ 도심형 생활주택 매디컬센터부지. Includes contact info 010-3666-4646.

경매. 배우면서. 돈버실분. 주 오천경매 투자연구소. Includes contact info 010-9731-8949.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Includes contact info 010-8617-7899.